

16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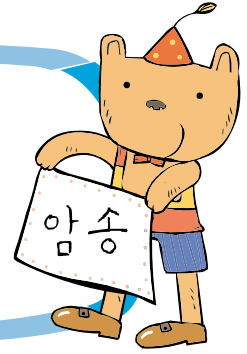
열왕기하 25장 1절~17절, 역대하 36장 11절~21절,
예레미야 39장 1절~10절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계속 죄를 짓는 유다의 백성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9)



하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백성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경우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며,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여 유다를 벌하셨습니다.

유다에 시드기야가 왕이 된 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 주위에 ¹⁾토성을 쌓고 포위하였습니다. 성안의 사람들은 거의 2년 동안 심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성은 ²⁾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군사들과 함께 성벽에 구멍을 뚫고 도망하였지만 곧 잡히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유다의 모든 높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안의 집들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었으며 어린 아이와 노인을 가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입니다.

¹⁾토성: 흙으로 쌓아올린 성

²⁾함락: 성을 둘러싸고 공격하여 빼앗음

오늘의 공부

참신이신 하나님

1. 북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알맞은 답을 찾아 보세요. ()



①



우리랑 관계없어!
우리는 계속 이대로
지내지 뭐!

②



저들은 비알을 잘 섬기지
않아서 멸망한 거야.
비알을 잘 섬겨야지.

③



이스라엘은 힘이
약해서 멸망한 거야!
힘을 길러야지.

④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계속하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9)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비웃고 조롱한 유다 사람들은 결국 비참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똑같은 잘못을 하지 맙시다

다음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대답해 보세요.

- ✿ 태훈이는 만화책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도 몰래 만화책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태훈이는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몰래 만화책을 보다가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학교에 만화책을 가져오면 만화책을 돌려주지 않을거야!”



- ✿ 며칠 후, 같은 반에 있는 정구가 또 만화책을 가져왔습니다. 정구는 태훈이가 그랬던 것처럼 수업 시간에 만화책을 보다가 선생님께 들켰습니다.

선생님께서 정구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의 말이나 행동을 짐작해서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여러분은 정구가 왜 또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정구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은 유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닮지 말아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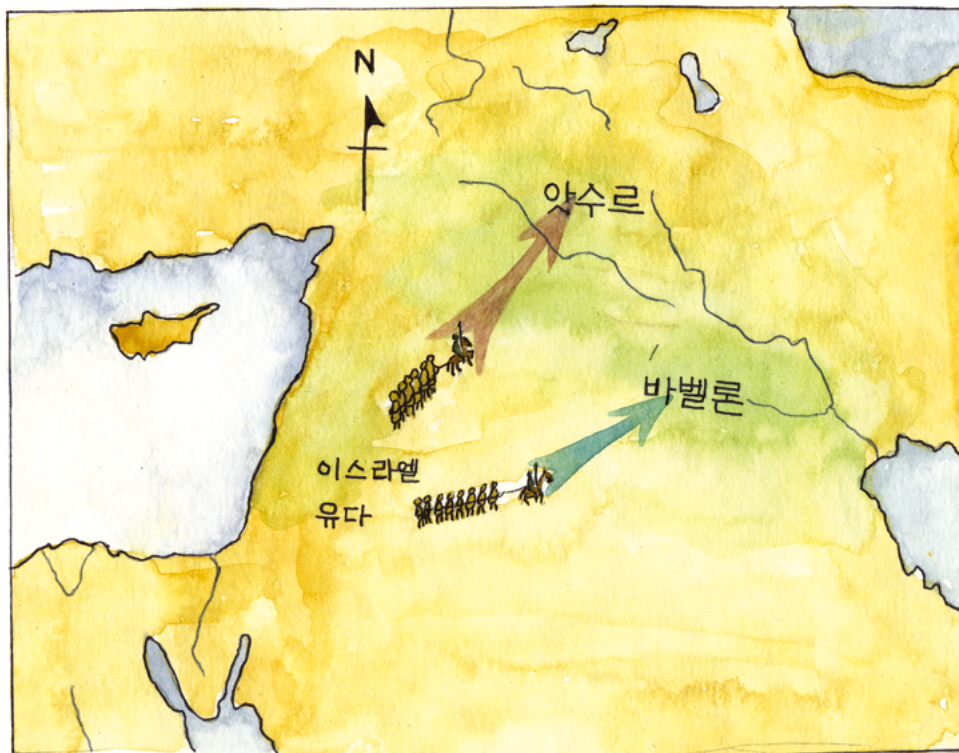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11)



알아볼까요

* 유다의 멸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끝까지 범죄한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유다는 기원전 606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